조선인민군 창건 8주년
기념 특집호

평화적으로 조국은
통일되여야 한다

송용남 그림

3 - AUG - 9
Copy ______ 1960

활살

2

시사 만화 잡지

1956.2 (63)

조선 인민의 무장력인 조선 인민군

우리의 인민 군대는 항일 빨찌산 부
대의 애국적 전통을 계승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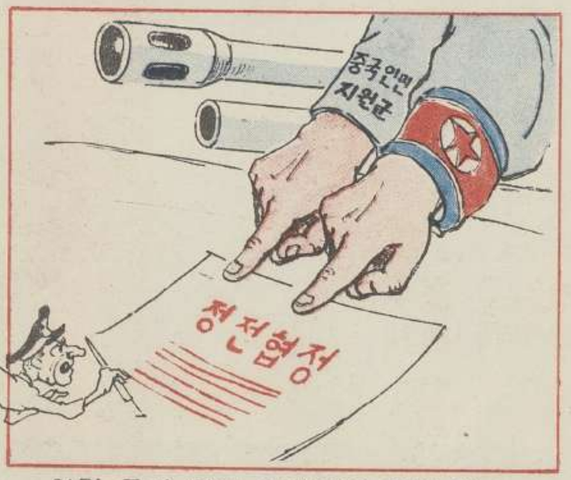
인민의 사랑과 지지 속에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쏘베트 군사
과학으로 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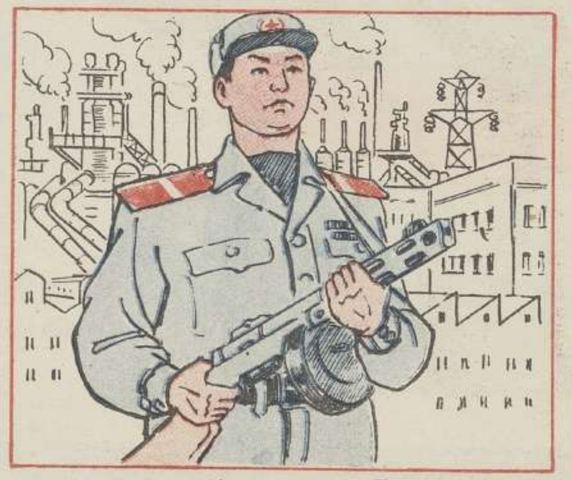
전후 복구 건설에서도 공훈

조국 해방 전쟁에서 열화 같은
애국주의를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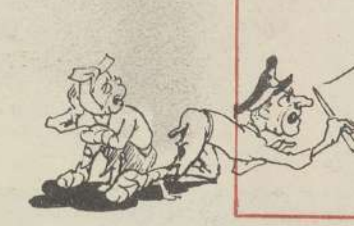
현대적 전투 진행 방법을 정통한
간부 군대로서 육성 강화



인민 군대 앞에 원쑤들은 혼비 백산



조국의 평화 안전을 철옹성 같이
보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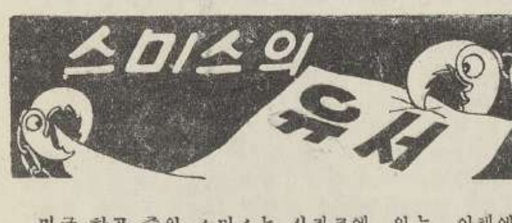
안창수 그림

세계 평화에 더 큰 기여

지난날 조선 인민군 부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이 조선에서 거둔 승리와 오늘 우리 나라의 평화적 건설 사업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는 자기 조국의 안전과 극동의 평화와 전세계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리영춘 그림

—우리 인민들의 강대성을 여기서 더욱 뚜렷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사업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바칩시다



미군 항공 중위 스미스는 시카코에 있는 안해에게 비밀로 보내려던 유서가 발각되여 군사 재판에 회부되였다.

그가 안해에게 보내려던 유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여 있다.

『사랑하는 안해 메리여 이 편지가 당신에게 보내는 나의 마지막 인사로 될는지도 모르겠소 조선에서 평화가 회복된 지금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고 당신은 의아적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되지 않도록 하느님께 기도 드렸소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는 래일 중립국 감독 위원회 시찰 소조 인원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소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소 시찰 소조 인원들을 태웠던 우리 비행기들이 원인 불명의 사고로 추락되여 타버린 사건이 두번이나 거듭되였고 불시착 사건도 한번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지요 이 사고로 인하여 세명의 파란 사람과 함께 미국 비행사도 사망하였고 그밖의 수명이 부상하였소 그런데도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특별 조사단의 조사를 우리 사령부에서는 거절하는구만요 그러니 내 어찌 「카슈미르호 사건」을 련상하지 않을 수 있겠소? 듣건대 중립국 감독 위원회 서전 대표들의 노르드 에리크쏜도 1월 7일 아침에 군사 정전 위원회 본부 구역 내에서 우리 군용 자동차에 의하여 희생되였다는구만요

당신도 시카코에서 자란 미국 녀인이니 이상의 간단한 말만으로도 짐작이 되리라고 믿소 시카코에서 자란 나는 이 사고들에서 「카슈미르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인 깽식의 모살 계획의 냄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소 주여 래일의 비행이 무사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눈을 피하는 「화물」들이 요즘도 계속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그러나 우리 수뇌부에서는 이 밀수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요 그래서 중립국 감독 위원회를 없애 치우려고 하는거지요

당신도 아다싶이 리 승만이로 하여금 중립국 감독 위원회를 「축출」케 하려던 우리 기도가 창피스럽게 파탄되였을 때 우리 수뇌자들은 「만족스러운 해결」을 쉽게 할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소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였는지는 듀•클러스•클란과 깽이 횡행하는 나라에서 살아 온 나로서는 지금은 충분히 짐작되는구만요

내 사랑하는 메리여 내게 불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그들의 가정상 문제들로서 만일의 경우에 필요한 대책들이 세세히 적히여 있었고 끝으로 가족 친척 친지들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다. 공포심에 사로 잡혀 그가 얼마나 전전 긍긍하고 있었는가를 이로써도 알 수 있다.

미 침략군이 지금 남조선에서 꾸미고 있는 이런 흉책에 대하여 전체 조선 인민은 예리한 경각성을 가지고 그 일거 일동을 주시하여야 한다. 유 항 림

방법은 간단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먹기 좋군

리 승만 괴뢰 정부는 1955 회계 년도의 국가 예산을 네번째나 수정하였다 예산을 수정할 때마다 그 압도적 부분을 군사 경찰비에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만 하드래도 이 예산으로부터 초래되는 재정적 파탄을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략탈로써 모면하려는 것이 그의 특징으로 되고 있다 그래도 리 승만은 이번 수정된 예산안이 수지가 맞는 균형 예산이라고 철면피하게 떠들고 있다

목적은 명확하다

박승히 그림

—북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

미제와 리승만 매국노 사이에 체결된 소위 『한 미 지도 제작 및 교환 협정』에 대하여 미국 대표 카터는 지도의 제작은 리 승만과의 공동 작전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는바 이것으로 이 『협정』에 대한 놈들의 침략적 목적은 더욱 명백히 알려지고 있다

개구리 우는 곳에 올챙이 춤춘다

오 홍 택

미국의 『저명한』 장군들 가운데는 장거리 『려행』이 류행되고 있다. 꽃이 피는 봄 철도 아니요 단풍지는 가을 철도 아닌 이지음에。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미 륙군 장관 브러커, 해군 장관 토마스, 공군 장관 쿼레스,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래드포드 등 장군들이 남조선, 대만, 일본 등 극동의 군사 기지들에 분주히 드나들면서 일련의 출개들과 비밀 회담들을 하였다。

1월 9일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래드포드 장군이 남조선을 방문하였다。 래드포드가 자기의 『권위』를 위하여 미 극동군 사령관 렘니체 미 제8군 사령관 화이트 등 휘하 장군들을 대동한 것은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군의 뒤에는 유·엔군이 있다 두려워 할 것 없다』

굽실거리는 리 승만을 굽어보면서 이렇게 호통할 때의 『당당한 위풍』에 래드포드 장군 자신은 매우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그는 조선에 도착한 다음 날인 10일에 의기 양양하게 미군 『일선』 부대와 군사 분계선을 시찰하였다。

『한국군은 세계-3위의 군대다 북진은 문제 없다』

군사 분계선 시찰을 마친 『위신』 있는 래드포드 장군의 이 호언은 소가 웃다가 꾸레미 터질 노릇이다。 래드포드 장군의 이 사려 없는 뇌까림에서 우리는 미련한 개구리에 대한 우화를 련상하게 된다。

적은 마을에 사는 개구리가 산넘어 마을을 구경하겠다고 산마루까지 어정 어정 기여 올라갔다。 개구리는 앞발을 쳐들고 마을을 굽어 보았다。 눈이 뒤에 붙은 이 흉한 동물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보고 산넘어 마을도 자기가 사는 마을과 꼭 같다고 하였다。

래드포드 장군은 머나 먼 조선땅의 군사 분계선 산마루로 어정 어정 기여 올라갔으나 또 래드포드 장군의 눈이 분명이 앞에 붙었지만 그러나 조선 인민들의 평화적 로력 투쟁에 의한 찬란한 성과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인민의 력량을 내다 보지는 못하였다。

미국 장군의 이 사려 없는 망발을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비오기 전에 시끄럽게 구는 청개구리 (그는 카키색 군복을 입었다) 의 울음으로 밖에는 달리 인정할 수 없다。

개구리 우는 곳에서는 올챙이가 춤을 춘다。 올챙이들인 리 승만과 그의 동료들은 개구리 장단에 맞추어 더욱 더 꼬리를 치고 있다。

리 승만은 강제로 끌려 나가 떨고 있는 『예비병』들을 앞에 놓고 『북진 명령만 내린다면 지금이라도 목숨을 바쳐라』하면서 『북진』을 웨쳤으며 『국방부 장관』 손 원일은 『정전 협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조속히 이를 무효화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멋도 모르고 날뛰였다。 괴뢰 륙군 『참모 총장』 정 일권은 『북진으로서 중임의 영광에 보답하겠다』고 꼬리를 쳤다。

개구리나 올챙이나 그놈이 그놈이지만 올챙이란 놈은 개구리 보다도 더 보기 흉하고 꼬리가 붙어 있으니 개구리 노릇도 못한다。

미국 장군들에게 보잘나위 없는 『위신』이라 할지라도 더는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마디만 더 첨가하련다。

옛날 개구리 한마리가 소를 보고 그 큼직한 몸집이 탐나 소처럼 커 보려고 막우 물을 퍼먹었다。 개구리의 배는 점점 불러갔다。 그러나 개구리는 개구리고 더 커질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니 탐욕 많고 사려 없는 개구리는 드디여 배가 터져 죽고 말았다。

딸라 주머니를 탐욕스럽게 불리려고 어데서나 함부로 전쟁 소동을 하다가는 미국의 『위신』 있는 장군들이 배 터져 죽는 개구리 신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담보하겠는가。

미제의 자선심

작년 12월 현재로 미제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강탈한 토지, 건물, 기타 재산은 최소한도 6억 8천 4백만 딸라에 달하건만 뻔뻔스럽게도 놈들은 략탈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원조』에 대해서만 크게 떠들면서 『자선자』로 보이려 하고 있다

장진광 그림

괴뢰군 병사들의 노예적 처지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에 의하여 강제로 『국군』에 끌려 들어간 병사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최근 남조선의 통신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국군』 3군단, 5군단을 비롯한 전체 『국군』 병사들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치욕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식사를 위시한 제반 생활품 공급이 "있으나 마나" 한 정도로 나쁜 데서 거지나 다름 없는 생활을 겪고 있으며 또 한 말 한마디 동작 한번만 잘못해도 소위 『기압』이라는 명목으로 고문을 받는 등 가즌 잔악스러운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서 노예나 다름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국군』 병사들의 생활 실정이라고 하다。

제 몫을 뺏겼다고

『국군』 3군단 3사단 18련대 1대대 3중대 2소대 병사 정 귀남이는 자기 중대장이 불러서 갔다。

『이번에 담배를 탓지… 넌 담배를 잘 안피우니 나랑 노놔 피자!』 중대장은 능청스럽게 얼리는 어조로 말했다。

『네…』 정 귀남이가 마지못해 대답을 하고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느 분대 놈들 보고 중대장의 명령이라고 그래라 담배 세갑씩 거더 보내지 않으면 기압이라고…』 중대장은 재차 엄격하게 명령을 주어 내보냈다。

『이번이라구 안뺏어 갈리가 있나 도적놈들이…』 병사들은 모처럼 탄 몇갑의 담배마저 중대장한테 뺏기게 되니 화가 났으나 어쩔 수 없었다。 정귀남이 역시 립장이 딱했으나 중대장의 명령인지라 할 수 없이 담배를 걷어가지고 나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대장을 만났다。

『애 그게 무어냐』 급히 다가 온 대대장은 꾸레미를 헤쳐 보더니 『흥 그거 잘 걸렸다 이리 냇』하고 명령했다。

『중대장께서…』 정 귀남이가 떨면서 말하자

『전방지게 무슨 잔소리야』 대대장은 철석 정 귀남이의 뺨을 치고선 담배 꾸레미를 뺏어 들고 가버렸다。

정 귀남이에게서 대대장한테 담배를 뺏겼다는 보고를 받자 중대장은

『개놈오새끼 내몫을 뺏기고 와서 무슨 변명이야 기압이다』 하고 펄쩍 뛰였다。

결국 정 귀남이는 『젯트기 기압』을 한시간 동안이나 당했다。

몽둥이 고문

전기 고문

편지가 왔다 해서

『국군』 5군단 27사단 79련대 2대대 2중대 병사 김 철룡은 대대 특무 장교한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붓잡혀 갔다。

『느 에미한테서 몇번이나 편지를 받았니?』 특무 장교는 닷자곳자로 심문했다。

『전 한번도 편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 철룡은 사실대로 대답했다。

『뭐라고? "국군 나간 집에는 잘 살게 해 준다더니 이번에는 미군 군사 기지로 논까지 뺏겨 못살게 되였다" 는 편지를 안받았단 말이냐?』 특무 장교는 유도적으로 심문을 하면서 김 철룡을 구타했다。

『전 그런 편지가 온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자식 같으니 진작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서… 그러나 그따위 편지가 오면 그냥 안둔다』 김 철룡은 보지도 못한 편지 때문에 『몽둥이 고문』을 당했다。

파리 때문에

『국군』 3군단 5사단에서 수색 중대원들을 완전 무장시켜 횡렬로 세워 놓고선 미군 고문이 검열을 할 때였다。 잔뜩 긴장하여 서 있는 병사 권 동진의 콧잔등에 웬 파리 한 마리가 와서 붙었다。 그래 권 동진은 코가 근질거리였기 때문에 콧김을 세게 내뿜는다는 것이 그만 『흥—』하고 소리를 내였다。 그러자 검열하던 미군 고문이 그의 앞으로 다가 서더니 『나빳』하며 따귀를 철석 갈기였다。 미군 고문의 뒤에 따르던 사단장도 권 동진을 발길로 차면서 고함쳤다。

『이놈아 고문 어른 앞에서 존엄성 없이… 버릇을 고쳐 놓아라!』

그래서 권 동진은 반 죽음에 이르도록 『비행기 고문』을 당했다。

비행기 고문

불 고문

웃지 않은 죄로

『국군』 5군단 27사단 79련대 1대대 3중대 병사 김 덕호는 중대부 직일병 근무를 보던 날 『물 고문』을 당했다。 그 원인은 련대장이 중대부에 나타나 중대장 이하 소대장들을 모아 놓고 『북진 전쟁』을 떠벌이면서 『미군이 뒤에 있는 이상 「국군」은 아침은 개성서 먹고 점심은 평양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호언 장담하자 모두들 맞장구를 치면서 멋없이 웃어댔다。

그러나 김 덕호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잠잣고 있었는데 련대장이 꽥 소리를 질렀다。

『넌 왜 찰떡에 체한 놈처럼 웃지도 못해…』

『넷 저는 직일 근무 중이여서 웃지를 못했습니다』 김 덕호는 얼른 변명을 했으나

『저런 놈 때메 「북진 전쟁」이 안되거든… 당장 정신을 차리게 「물 고문」을 해라!』고 련대장은 명령을 했다。

비둘기를 좋아 한다고

『국군』 3군단 3사단 18련대 1대대 3중대 1소대 병사 황 병철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 하였다。 그는 고향에 있는 애인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사랑을 한 쌍의 비둘기로써 상징하여 그린 그림을 책 속에 끼여두었다。 그런데 하루는 대대 특무 장교가 황 병철을 끌고 갔다。

『이게 뭐냐?』 특무 장교는 날카롭게 질문을 하면서 그 한 쌍의 비둘기 그림을 내 놓았다。

『앗차 내 소지품을 뒤져 보았구나』하고 직각한 황 병철은 『제 애인이 비둘기를 좋아 했고 또 저도 좋아 하는데서 저의들의 사랑의 상징으로 그렸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했다。

『비둘기를 사랑한다고? 개자식 같으니…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비둘기를 좋아하는 놈은 붉은 분자다!』

특무장교는 고함을 쳤다。 이렇게 되여 황 병철은 붉은 분자로 몰려서 몇시간 동안이나 『전기 고문』을 당했다。

물 고문

총살

송용남 삽화

같은 소대원이라 해서

『국군』 5군단 27사단 79련대 1대대 3중대 7소대 병사들 중에서 공화국 북반부로 의거 입북한 사진이 있은 직후였다。 이에 당황한 장교들은 다른 병사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거 입북한 병사들을 『공작상 수색 중대로 이동시킨』 것처럼 말하면서 병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병사 김 경섭도 의거 입북한 병사들과 같은 소대원인 데서 대대장한테 심사를 받았다。

『넌 요즘 도망갈 생각을 했지』

『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경섭은 짐작되는 일이 있어서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대대장은 김 경섭을 구타하면서 계속 추궁했다。

『그럼 느 소대원 놈들이 어데로 도망갔는가 바른대로 대라』

『수색 중대로 공작 이동되였습니다』 김 경섭이가 모르는척 하고 대답하자 대대장은 『모른다니 좋다! 그러나 같은 소대원이니까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김 경섭은 『불 고문』을 당했다。

송 화

리 승만 치료중

홍종호 그림

쪽집개 소식

옛 친지들끼리

고달프고 수치스러운 『예비병 훈련』에서 처음으로 가지는 짤막한 『자유 시간』에 옛 친지를 조용히 만나게 되였으니 오죽 반가우랴!

『형님은 어찌다 끌려 나왔소?』

『사십 가까운 나이만 믿고 안심했다가 그만 이꼴이네 그런데 제대된지 며칠 안되는 임자는?』

『포란 파편이 아직도 셋이나 남아서 제대된 나까지 끌어낼 줄이야 알았나요』

『그런데 전번 훈시 때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강한 놈은 약한 자를 잡아 먹는단 말이지?』

『그렇지요 「국군」에서 늘 하는 말이지요』

『그럼 미국과 「한국」을 비해 볼 때 미국은 승냥이고 「한국」은 고기덩이가 돼야 한단 말이겠군! 미국이 승냥인건 틀림 없지만 승냥이의 밥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북진 북진」하고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 대니 대판걸 임자 경험으로 봐선 어떻게 생각되나?』

『말씀맙쇼 북진이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둘이는 하고 싶은 말이 태산 같았으나 더는 말할 시간이 없었다.

『좁은 문』

바께쯔며 물 통들이 길게 늘어선 서울 아현동의 뽐프수도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부인네들이 주고 받는 말이다.

『댁에서는 아드님네들이 그처럼 공부를 잘 하니까 고생 중에도 락이 있겠어요』

『공부를 잘 하는 것도 걱정 거리에요』 작년에만 해도 둘째 애가 국민 학교 졸업이 가까와 오자 조그만게 한숨만 내쉬지 않겠어요 중학에 들어가려면 숱한 교제비가 든대나요 공부만 잘 해선 어림 없대요 마침 외오촌 한 분이 중학교 선생님으로 계셔서 겨우 들어갔죠 그랬더니 다음엔 고등 학교 졸업 반이던 큰 애가 경찰에 붙들려가 석달쌕이나 고생하지 않겠어요 하두 공부를 잘 하니까 선생님네들의 눈에 들었는데 선생님 몇분이 붉은 사상이라고 공연한 시비에 걸리는 바람에 그애까지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세째가 다니던 국민 학교가 적산이라고 모리배들한테 팔려서 쫓겨났지요 둘째가 간신히 들어 갔던 중학교는 폐쇄되고요 그래서 모두 락심천만으로 앉아 있으니 보기에 딱해서 못견디겠어요 차라리 공부나 못하는 애들이라면 부모로서도 단념하기가 쉽겠는데… 아드님이 대학에 다니는걸 보면 늘 부러워요』

『대학엔들 편안한 줄 아우 그애네 대학도 「대학 설치 기준령」인가에 걸려서 폐쇄된다나요』

기름을 짜듯이

『좁은 문』으로 불리우는 남 조선 학교들은 또한 략탈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남조선 농민들에게 형형색색의 잡부금이 수다히 있듯이 학생들에게도 가지 각색의 잡부금이 있다. 사친 회비, 월동 대책비, 학급별 연료비, 충혼탑비 등등등

학교에 들어가려면 뒷문으로 찾아가 옆구리를 찔러가며 줘야 하는 교제비는 말고라도 정식으로 받는다는 입학금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기일 내에 내지 못하면 『과태금』까지 받는다. 전북 대학의 실례만 보드래도 작년에 입학금의 『과태금』으로 받아낸 것만도 33만환에 달한다.

학기 초마다 등록금을 징수하는데 작년 4월 입학기에 남조선 전체 학교가 받아낸 등록금 총액은 160억환에 달했다. 이 금액이면 백환짜리 지폐를 잇대여 놓으면 약 8만리 천환짜리라도 8천리는 땐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은 말한다. 이 학교 저 학교가 서로 다른 모표를 달게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표 —참기름 짜는 착유기를 그려 붙이게 하는 편이 옳지 않느냐고—

—최근의 남조선 소식에서—

삼 떡

남조선 인민들의 원성은 높다

홍 우 만

『전등불이나 수도물이 나오는 날이면 뭔지 귀신에 홀린 것만 같이 겁이나요』

최근 『동아 일보』는 『밤에 서울 거리를 가다』라는 글에서 요즘 서울 시내의 일반 가정 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썼다. 무슨 수수께끼와도 같이 들리는 이 말 가운데는 적어도 두가지 측면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전등이 켜지지 않고 수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상사로 되여 있어서 전등이나 수도가 없던 옛날 시대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불이 켜지거나 물이 나오면 귀신의 작난 같아서 미군이 함부로 쏘는 총알에 맞아 죽거나 만취한 순경놈의 구두 발길에 뼈가 부러지도록 채이거나 할 것이나 아닐까 하여 불길한 예감에 사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점은 남조선 인민들이 그 얼마나 심한 어둠과 목마름 그리고 전신을 조여드는 강박 관념에 신음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실제에 있어서 남조선 인민들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바로 살인귀 흡혈귀들이 날뛰고 있는 캄캄한 생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상기 『동아 일보』는 남산에서 내려다 본 밤의 서울 거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역시 관공서, 은행, 반도 호텔, 기타 외군용 건물에만 불이 켜져 있을 뿐 대부분의 주택가는 전혀 캄캄하고 이따금씩 지나가는 자동차의 헷드라이트를 통하여 겨우 서대문과 마포 신설동과 청량리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다』

동 신문은 계속하여 쓰기를 불야성과 같은 료리집 『아서원』에는 30—60왓트짜리 전등이 무려 150 여 개나 켜져 있으며 다른 료리집 『국일관』에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일관』 주인은 전등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뻔뻔스럽게도 『우리는요 치안국이고 경찰국이고 전기 회사고 조사하러 나와도 좋습니다 아시다싶이 여기는 보통 손님이 오는 곳이 아니고 꽤 중요한 자리니까요』라고 자기네의 『치외 법권』을 뽐내고 있다. 『동아 일보』에 의하면 사실 리 승만 도당의 가즌 『협잡들이 국일관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반동 신문 『동아 일보』의 이 짤막한 글에서도 더없이 명백해진 바와 같이 남조선 인민들은 전등불조차 없는 상시적인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캄캄한 서울 거리에서 등불 없는 일반 가정을 비웃는 듯 유달리 불빛이 휘황한 그곳에는 백귀가 란무하는 마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돈 없고 권력 없는 인민들은 긴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마굴에서는 협잡과 사기를 유일한 밑천으로 하는 각종 뿌로카들, 인민의 재물을 횡령하는 탐관 오리들, 『감투』 바람에 열이 오른 렵관배들, 농민의 피땀으로 기름진 지주 등 리 승만 도당 상층부들과 138개 이상에 달하는 미국 상사들의 종업원들, 미국 『대사관』 관리들, 『유·엔군』의 고급 간부들이 드나들고 있다.

『동아 일보』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깜박하고 켜지는 전등불을 보고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죄악을 련상하고 놈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우연한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 인민들과 그놈들 사이의 결코 상용될 수 없는 모순은 날이 갈 수록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더 없이 흉악한 원쑤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로 인하여 날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때문에 침략자와 매국노들에 대한 인민들의 원성은 드높아가고 있으며 원쑤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기세는 힘차가고 있다.

아래로부터… / 우로부터…

중대장은 략탈하고

대대장이 맛보기에 거덜나고

대대장은 앉아서 가로채고

남어지는 중대장이 핥아먹고

련대장은 제 몫이라고

사병들에게는 빈 깡통만 뎅그렁…

백인균 그림

상봉

『국군』 병사 안 철석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채 짚차도 안타고서 걸어나가는 대대장의 림시 호위병이 되여 따라나서게 되였다.

『넌 내가 들어가는 집의 밖에서 "빨갱이"년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한다』 의정부 거리로 들어서면서 불쑥 내갈기는 대대장의 명령을 듣고서야 안 철석은 비로소 —무슨 개수작을 또 하려는게군—하고 짐작을 했을 따름이였다.

× × ×

전기불은 고사하고 석유 값도 껑충 올라서 등불마저 켜지도 못하는 뒷골방에 혼자 있노라니 정녀의 눈 앞에는 끊임없이 지난 일들만 떠올랐다.

한때 고향인 충청남도 론산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던 일이며… 그러다가 남편이 『국군』에 끌려간 후 두 살난 아들 명식이는 병으로 죽고 또 론산에 『국군』 훈련소가 생기더니 논까지 훈련장으로 뺏기고선 대전으로 서울로 살길을 찾아 헤매던 일이며… 두어달 전에는 의정부 거리까지 흘러와서 지금 설농탕 집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 살아 온 일들이 그저 원통스럽기만 하였다.

—이렇게 살다가 그이도 못만나고 말면 어찌나— 더우기 5년 전에 『국군』에 끌려나간 후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남편 생각을 하면 정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서 통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 × ×

『이보 벌써 자는가? 어서 문을 열소』 벼란간에 주인을 찾는 거칠한 목소리에 깜작 놀랜 정녀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아무 것도 없는뎁쇼』 큰 방에서 어린 애들과 같이 자던 주인 녀자가 잠결에 설핀 대답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내다 보드니 낮에도 찾아와서 성가시게 굴던 대대장이 또 나타난 것을 보자 『아이 대대장 어른께서 웬 일이서요?』하고 불안스럽게 인사를 한다.

『놀랠건 없소… 설농탕은 있어도 못먹겠구 "저거나 내놓소』 대대장은 거만스럽게 말하면서 전지불로 부엌 쪽을 의미 있게 비춰 보인다.

『대대장 어른도 별 롱담을 다 하시지… 남편이 있는 식모를 보고…』 주인 녀자는 억지로 친절한 말씨를 내여 대꾸를 한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어서 불러 오 안불러 오면 내 찾지!』 대대장은 대번에 낯을 찌프리고 주인 녀자를 쏘아보며 말한다.

정녀는 뒷골방에서 이 말을 듣자 오늘 낮에 나타나서 흉물스럽게 자기를 노려보던 대대장의 낯짝이 얼핏 떠올랐다. —이 일을 어쩔가? —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생각이 들어 열른 방에서 뛰여 나온 정녀는 어둠을 다행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뒷 싸리문 쪽으로 갔다.

그런데 캄캄한 싸리문 밖에는 대대장의 호위병 안 철석이가 지켜 서 있었다. 뜻밖에 들리는 인기척 소리에 정녀의 가슴은 그만 철렁 내려 앉았다. 이때는 벌써 대대장도 부엌 뒷 문을 열고 뒷 뜰악으로 들어서면서 『도망치면 쏜다』하고 고함을 쳤다.

눈 앞에 짐승마냥 달려드는 대대장을 보자 정녀는 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다 —차라리…— 하고 비장한 결심을 한 정녀는 바로 지척에 있는 뜰악의 우물을 향하여 날새게 다가갔다.

『아—』 하는 외마디 소리와 순간을 두고 세길도 넘는 우물 속에서 『텀벙』하고 물울림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일은 정말 신기스럽게 되였다. 이 집 뜰악에 깊은 우물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하고 미쳐 덤비던 대대장은 정녀만 밀쳐 나자빠지게 하던 순간 자기는 발을 헛 디디여 곧바루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을 하여 끝장을 보고 말았다.

싸리문을 박차고 안 철석 병사가 급히 달려왔을 때는 우물가에 내팽겨진 대대장의 전지불만이 쓰러져 있는 정녀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쳐주고 있었다.

『아니?!』 안 철석 병사가 갑자기 놀래면서 정녀를 끌어 안아 일으켰을 때 더욱 놀랜 것은 주인 녀자였다.

『아이구 용서하십시요 아무 죄도 없는 불상한 녀자입니다』 주인 녀자는 어쩔 줄을 몰라 안 철석에게 그저 빌면서 애걸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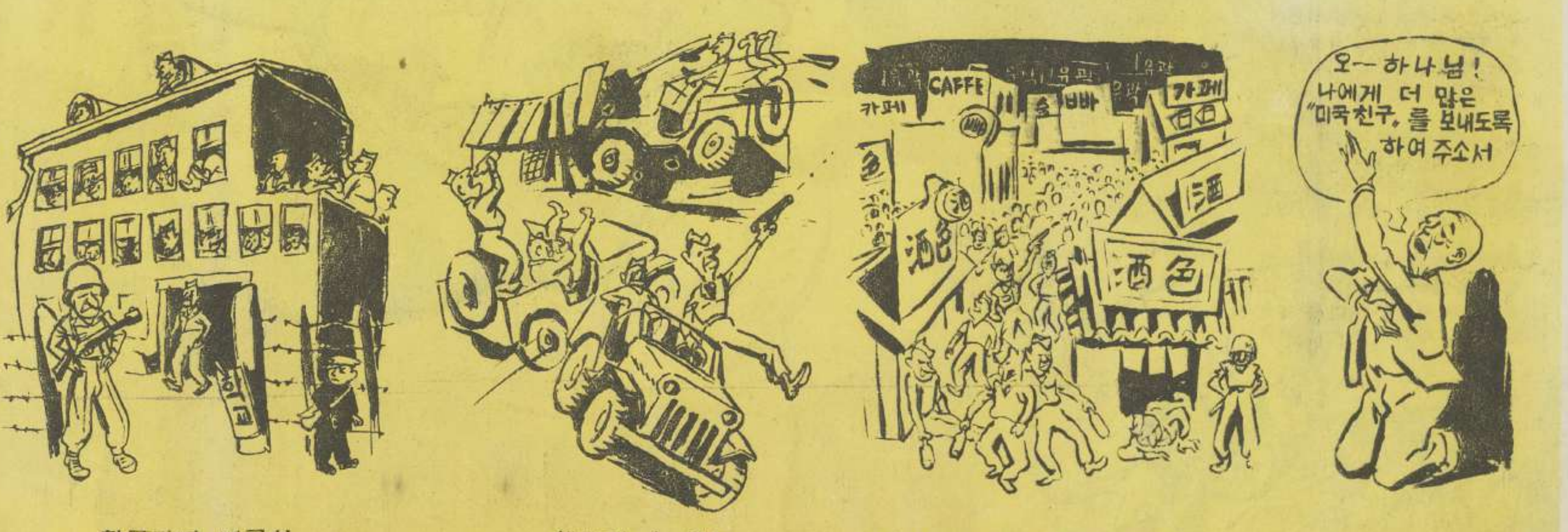
『명식 아버지! 당신이 어떻게 여길 오셨으유…』 하고 정신을 차린 정녀가 그냥 안 철석의 목을 부어 안고 울었다.

『정녀! 여보 정녀! 이게 어찌된 일이요 응?』 분명히 자기 안해임을 알아 본 안 철석 병사는 목이 타게 웨쳤다. 안 철석 병사는 안해를 만난 반가움과 함께 이런줄도 모르고 보초를 섰었던 분함으로 하여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다.

놈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심과 함께 다시는 그런 치욕스러운 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결심을 한 안철석 병사는 정녀와 더불어 새 삶을 찾아 어둠 속을 헤쳐 갔다.

김 동 희

범람하는 미군



학교마다 빼곡히 들어 있으며

헤아릴 수 없는 교통 사고와

술집과 빠—마다에 미국놈들로 가득차 있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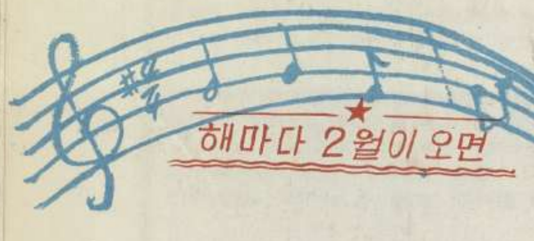
박승히 그림

리영춘 그림

2월의 소식

……내가 인민 군대에 입대하던 날 당신이 부탁하던대로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훈련에서 학습에서 써클에서 늘 앞장 나서고 있소……
—여보게 그 편지에다 우리들의 성과도 써 주게나

……모범 군인표를 가슴에 달고 찍은 당신의 사진을 보고 집안 식구들은 당신을 만나 보기나 한듯이 기뻤답니다……
—호호… 이왕이면 우리들의 이 웃음도 좀 넣어 주렴



해마다 2월이 오면

해마다 눈 녹이는 2월이 오면
첫 봄을 울려 오는 발자국 소리
수령의 부름 받고 선참에 나선
용사들의 모습이 안겨 온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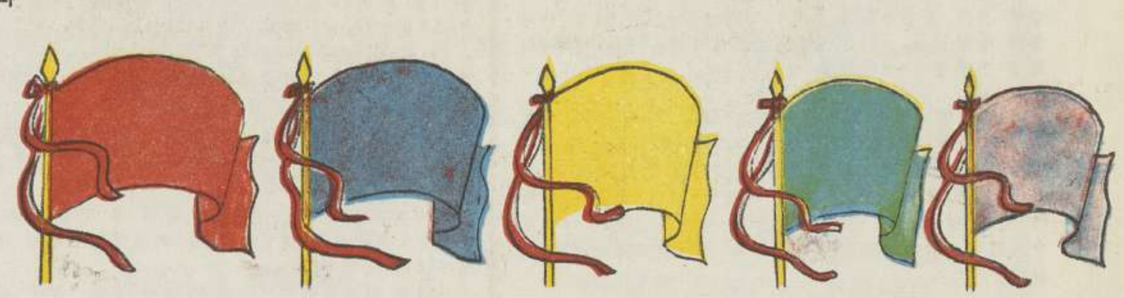
눈보라를 헤치고 일제를 족친
항일 유격대의 전통을 이어
그대들은 왔어라 총을 비끼고
봄의 앞장에서 우리 앞으로

전쟁을 눌러 버린 용사들에게
인민은 축하하네 2·8절 이날
공장의 굴뚝들은 손길 높이고
협동의 들판에선 노래 울리네

노래여 울려가라 초소마다에
봄 맞이 고향 소식 높이 전하라
계획을 넘쳐 내여 부유한 살림
용사들의 가슴에 꽃을 안기라

귀여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조국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
초소를 철벽 같이 지키는 그대
승리와 영광이 길이 빛나라

해마다 눈 녹이는 2월이 오면
첫 봄을 울려 오는 발자국 소리
승리자의 대렬에 꽃을 뿌리며
인민은 그대들께 영광 드리네



지난 1월 19일 모쓰크바에서는 조선 인민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실주의 작가인 박 지원 서거 150주년을 기념하는 회의가 진행되였다

박 지원은 모쓰크바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박승히 그림

보다 높은 투지로

최한진 그림

—우리 로동자들은 기여코 금년도 계획 과제를 앞당겨 초과 완수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어김없이 보다 높은 알곡 증수를 보장할 것입니다

박두한 조선 로동당 제3차 전당 대회를 빛나는 로력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기세는 더욱 앙양되고 있다

일본에서 환영 받는 조선 영화

일본에 진출한 "정찰병", "빨찌산 처녀", "비행기 사냥군조" 등 조선 영화는 도처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보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걸…
—그런데 나는 그한테 눈을 뺏겼네

최영근 그림

조선에 온 루마니야의 벗들

—정말 놀라운걸… 벌써 저렇게 높은 발전을 했구려

최한진 그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루마니야의 과학 대표들은 우리가 거두고 있는 과학 연구 사업에서의 성과에 대하여 많은 찬양을 하였다

원자 시대의 당연한 주인

장진광 그림

자본주의 세계의 언론계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절망적으로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로씨야 경쇠의 일부 사람들이 쏘련의 5개년 계획들을 냉소로써 맞이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불안스러운 어조로 쓰고 있다

마술사

김 헌 석

『중 근동 사람들이여 우리를 보호자 원조자로 믿으시오 바그다드 조약에 드시오 바그다드는 마술의 고향 아메리카는 마술사처럼 중 근동에 행복 보자기를 펼 것이오 바그다드 조약에 드시오』

덜레스는 마호멧트교 식으로 한 손에는 바그다드 조약 한 손에는 대포를 들었다。

중 근동 사람들은 보았다。

베이루트 항구로 미국 함대가 무력 시위를 하면서 입항하는 것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총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중 근동의 석유가 대서양 쪽으로 송유관을 통하여 흘러 나가고 있는 것을…

그렇기에 중 근동 사람들은 바그다드의 마술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을 쳐부시고 성조기를 찢었다。

미국의『자선가』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아메리카의『자선』을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 인민들께 믿게 하려고『크리스마스 멧세지』를 띄웠다。

『지주와 자본가 없는 당신들은 불행하다 와르샤와의 과학 궁전 부다페스트의 오페라가 당신들께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지주와 공장주를 위해 충직한 자에게 영원히 복이 있을 지어다』

가난을 락으로 삼으며 월가 은행가들의 농장과 기업소들을 위하여 밤을 아끼지 말며 자기 자신들을 나라의 주인공으로 믿지 말도록 되기를 권고하는 미국『자선가』들의『크리스마스 멧세지』는 아이젠하워, 덜레스, 해리만 자신들도 믿지 않는 편지였다。

한편 이번에는『멧세지』의 실패의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그들은 기구 값을 거액으로 백악관 예산에 계상하였는바 기구들을 바람을 리용하여 동쪽으로 보냈다。 그런데 한편 쁘라가에서는 과테말라의 요전번 대통령 아르벤즈가 기자단과 회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테말라는 실제상 미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으로 넘어 갔다

과테말라의 북쪽 및 동쪽 지역의 3분의 1 이상의 땅이 석유 독점체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과테말라의 모든 산림 부원이 외국 독점체들의 소유로 넘어 갔다 외국 독점체들은 과테말라 령토의 약 8분의 1을 커피 재배지로 리용하기 위하여 점유 하였다』

『크리스마스 멧세지』나 기구에 실어 보낸『미국의 소리』는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과테말라처럼 만들었으면 하는 아메리카의 욕망이다。

『멧세지』는 회답을 받지 못했으며 기구는 백악관『신사』들의 심장 속에서 터지고 말았다。

『멧세지』나 기구 노름에서 조소를 자아 냈을 뿐인 덜레스는 이번에는 기상 천외의 번쇄 철학을 안출해 냈다。

전쟁의 바로 문 앞에서 항상 감돌므로서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명제』 과연 덜레스식『론리』다。

술 통 속에 몸을 잠그고 있어야 금주가가 될 수 있다。 항상 배가 곯아 있어야 기아를 면할 수 있다。

이것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명제』가 감히『대 아메리카』 국무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미국의 신문 기자들까지 아이젠하워를 찾아 새삼스럽게 국무 장관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문의하게 되였다。 아이젠하워는 국무 장관의 정신 상태의『정상』을 보장하였다。 물론 아이젠하워의 보장대로 덜레스는 미치지 않았다。

문제는 덜레스의 정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확대 강화되는 평화 력량 앞에서 계속 전쟁에 대하여 선동하려다 보니 그만큼 로골적으로 도발적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자신의 상원 외교 위원회 위원 맨스필드 조차도『정부는 미국으로 하여금 외교적 참패를 가져 오게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상원 외교 위원회 위원장 월터 죠지는 이를 지지하였다。 미국의 신문『뉴욕 타임스』에는 제임스 위버그의 론평이 게재되였는바『현 대외 정책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씌여 있다。

국제유모어 소개

urzica — 루마니아 "우루지까"

루마니아 풍자 만화 잡지 "우르지가"
1955, 24호에서 전재
브·찌모크의 그림

—야 나는 가겠으니 네가 계속 이 어름을 마서 버려라!

eulenspiegel — 독일 "오이렌스삐겔"

독일 풍자 만화 잡지 "오일렌스피겔"
1955, 52호에서 전재
레오하스 그림

쓰딸린시의 다섯해

용해공—나는 당신이 계획을 완수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용광로—천만에요! 그것은 당신의 덕택이지요

국제단신

달을 팔아 먹는 자들

과학의 발달은 달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특히 이 방면에서 쏘련 과학이 거둔 성과들은 세계 인민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놀랜 미국의 식민주의자들은 초조히 부르짖고 있다。 미국 잡지『글로리야』는 쓰기를『우리는 빨리 달 나라로 가서 미국 깃발을 꽂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 국기가 휘날리게 될터이니까』

그런가 하면 달 나라로 가기 위한 만반의 연구가 아직 끝나기도 전인 지금부터 달 나라의 땅을 팔아 먹기 시작한 자들이 나타났다。 전 뉴욕 천문대 책임자였던 미국『성계 교통 회사』의 로버트·폴스는 서둘러 가며 성명을 발표했다。

『달은 우리의 세력권 내에 있다 우리에게 대금을 선납하고 예약하는 사람에게는 1딸라에 대해 1에카의 달 나라 토지에 대한 영구 사용권을 준다』

그리하여 폴스는 4,50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달 나라의 주인으로 나선 자는 그 뿐이 아니였다。

프로리다주의 하리 찰은 그보다도 먼저 성명을 발표한 사람인데 폴스와의 경쟁이 시작되자 달 나라의 토지 값을 얼마간 낮추겠다고 성명하였다。 그리하여 불 꽃 튀는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인간 정신으로부터 천체의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으며 또 팔아 먹을 수 있다는『미국식 생활 양식』의 표현이며 식민주의자들의 버릇인 것이다。

불 청 객

미 국무 장관 덜레스가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할 의사를 표시하자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해당한 반응이 있었다。

인도 신문들은 반문한다。—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려는『세아토』(동남 아세아 군사 동맹)의 창시자이며『고아는 포도아 령토』라고 포도아 외상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덜레스가 인도에서 할 일이 무언가고— 『인디안 엑스프레스』는 론평하기를 덜레스는 인도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의 인도 방문은 불필요하며 그는 카라치에서 곧장 미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을 것이며 뉴델리 방문을 고집함으로써 인도 정부를 괴롭히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신문『인도네시아 라야』는『이번에는 서부 이리안을 화란에 제공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식민주의의 대표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려는 목적에 경종을 울렸다。

쏘련 국가 지도자들이 인도, 비르마, 아프가니스탄 등을 방문했을 때 이 나라들의 인민들로부터 열렬하며 진심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대 환영을 받았던 사실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쏘련의 평화적 대외 정책과 미국의 전쟁 추구를 위한 대외 정책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배격 받는 미군 일본 주둔

일본 방송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최근에 일본 중학생 3천 여 명에게『미군의 일본 주둔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 여론을 조사한 일이 있었다。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절대 다수가『미군 주둔을 반대한다』고 대답하였다。 반대하는 리유로는 미군은 일본을 원자 무기의 전쟁 마당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 남의 나라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 아니꼽다는 것 기타였다。

김 덕 삼

엉터리 없는 망상

최근에 화란의 반동 신문 "데 마쓰보제"의 지면들은 소란스러운 제목들로써 너저분하다。 신문은 독일 사람들의 독일 통일에 대한 갈망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재 통일에 대한 서부 독일 사회 층의 갈망은 본 정부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의 접촉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야 말 그런 정도로 억제하기 어려운 힘으로 될" 날을 편집부는 공포에 싸여 예견하고 있다。

아이그머니 동서의 독일 사람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니!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 독일에서 성숙되고 있느냐! 과연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경우에서도 안될 일이다! "데 마쓰보제"가 목숨을 내 놓는 한이 있어도 안되지! 몇몇 외교관들을 맹종하면서 "데 마쓰보제"의 편집원들은 실제적 강령을 떠벌이고 있다。 즉 서부의 질서대로 서부 독일에 병합시키는 구호 밑에 동부 독일에서 "인민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쓰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는 아무리 날뛴다 해도 사태의 진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편집부는 "인민 운동"을 전 독일의 군국주의화 및 북 대서양 동맹에로 인입시키기 위하여 조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힘에 겨운 과업을 직업적인 정치가들에게 이전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만일 정치 이것이 가능의 예술이라면—그들은 쓰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동부를 서부에 예속시키는 그러한 발전을 촉진시켜야만 한다"

가령 정치 이것이 가능성에 대한 예술이라고 하자。 그래도 과연 정치와 같은 그러한 예술에서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는가!

끄로꼬질 36호에서

가장 좋은 선물

—조선 전쟁 참가자의 독백—

—여보시오 당신은 뉴—욕의 제5가에 있는 어느 상점에서 건전한 한 청년이 갑자기 엎어지더란 것을 상상할 수 있을가요? 이것은 실지 최근에 있은 일이지요 그때 이 사람은 정신이 말똥말똥하였고 아무도 그를 떠밀친 것도 아니요 바닥에 엎드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때는 원자탄 련습 경보도 없었을 때거든요。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들어 보우 나는 어제 악기 상점에 들려 어떤 새로운 레코드를 청했지요 무엇이든 유쾌하고 달콤하고 감동적인 것을 청했지요。 판매원은 나의 군복을 자세히 보더니 친절히 묻겠지요 조선에 간 일이 있는가 없는가고요。 나는 그곳에서 톡톡히 포화의 맛을 보았다고 말했지요 "훌륭하십니다 —그는 말했지요—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당신에겐 감명 깊을 것입니다" 그는 레코드를 틀어 놓았지요。 그러자 내 귀에는 기관총 소리가 울렸지요。 다음에는 휴—하는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나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지요 어찌 하겠어요。 습관이 된 걸요。 그래 바닥에 엎드려서 폭발 소리를 들었으며 땅크의 요란스러운 소음을 들었지요。 내 얼굴이 어떻게 되였든지 나는 모르지만 아무도 웃지는 않았지요。 레코드 판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지요 "조선 전투의 실제 록음—정전 후에 전쟁 참가자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요。 나는 판매대에 돈을 던져 주고 레코드 판을 들자 그것을 바닥에 힘껏 메쳤지요。 그리고 말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몰라도 나는 다시는 이런 음악을 듣기 싫소 록음에서나 더우기 실지에서나"

끄로꼬질 1954년 12월호에서

(한 동 신 번역)

긴급 전화

—시당부에서 보내 온 약봉지를 빨리 찾아 가십시오!

장진팡 그림

4만 공수의 로력을 절약한 경공업성 산하 제1 트레스트를 비롯하여 트레스트들에서 로력 절약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이때 아직도 일부 일군들은 자신이 트레스트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무원칙한 동정

어느 가을 날에 한 농부가
나무하러 산 속으로 갔다네
갑자기 나무에서 서리 맞아 온몸은 굳어지고
눈은 뿌옇게 된 거진 죽어가는 뱀이
돌처럼 그에게로 떨어졌다네

농부는 뱀을 불상히 여겨
꼬리를 들고 집으로 왔다네
따스한 아랫목에 자리를 내 주고
애들에게처럼 뱀에게 솜 옷을 깔아 주었다네
그리고 열심히 입 김으로 녹여 주었다네
거진 죽어 가던 뱀은
다시 삶에로 되살게 됐다네
그런데 살아나자 뱀은 대번에 달라졌다네
살기찬 눈에서는 불을 뿜었으며
대가리를 꼳꼳이 그에게로 쳐들었다네
그리고 생명의 은인에게
독 품은 혀끝이 날카롭게 향해졌다네
—어찌된 셈이냐?— 농부는 고함을 쳤지
면할 수 없는 죽음에서 나는 너를 살렸는데
너는 물려고 노리고 있고나!
도대체 누구를? 나를! 안될 일이다!
독사야 그만 두어라!!
그리고 그는 몽둥이를 들자
단단히 뱀을 짓쪼였다네
먼저 골통을 그리고 꼬리를 다음엔 허리를
동강난 세 토막이 서로 붙으려고 했다네
꼬리는 배에 달리려고
머리는 반대로 꼬리에 달리려고
그러나 공연한 발악이지
그것들이 어찌 맞붙을 수가 있으랴!

어진 사람이
뱀을 따뜻하게 돌보고 싶어 할 때
이것에 대하여 그를 칭찬할 필요가 없다네
악한 것에 대한 어리석은 동정은
자기를 악한 것에 내 주는 것이라네
간악한 흉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라
모든 악한 것들은
반드시 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반동 문학의 독소

박승히 그림

반동 문학은 인민들로 하여금 계급적 자각을 마비시키며 "약육 강식"의 착취와 노예적 굴종을 합리화 하며 무기력한 허무주의 및 추악한 퇴폐적 본능주의와 인간 증오 사상의 독소로 중독시킨다

호랑이의 현지록음

활살 편집부 록음실까지 들려오는 『잡음』의 출처를 찾아서 "호랑이"는 현지 록음을 떠났다.

△

철산군 인민 위원회 일부 지도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서 복무하자면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하부 실정을 잘 료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 그는 사무실에 앉아 하부 실정을 료해하기 위해서라는 구실 밑에 국가에서 제정도 하지 않은 19종에 달하는 복잡한 양식으로 불필요한 통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 통계는 그나마 수집되여 책상 우에 놓인 후 먼지만 쌓였으니… 그들이 말하는 『하부 실정 료해 사업』이란 아무도 모를 수수께끼…

△

서기장 라 운봉 동무는 『사무 간소화』라고 해서 중요한 지시 문건까지 내지 않고 하급 일군들을 빈번히 불려 올렸다. 그래 리 위원장 동무들은 노트를 들고 큰 일에도 적은 일에도 많은 구두 지시를 받느라고 땀을 흘리였다. 서기장 동무도 이렇다 보니 머리가 얼떨떨해 지난번의 내각 결정 57호에는 둘각담 면적을 기본 면적에서 공제하기로 되여 있으나 빼여 놓고 구두 지시를 주어 리 위원장 동무들은 사업에서 혼돈되고… 복잡성만 초래하게 되였다.

그래도 서기장 동무는

『사무 간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저런 것을 극복하라』고… 그러니 그의 『사무 간소화』는 『사무 복잡화』가 된 셈…

△

일부 지역들에는 아직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다.

상부의 결정 지시를 『기본 정신을 그대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또는 『이미 취급한 대책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등 리유를 『적당히』 붙여서 집행했다.

그래 상부의 결정 지시를 실정에 구체화 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또는 그대로 사본해서 하부에 시달하며 하부에서는 또한 이를 그대로 사본해서 또 하부에 시달…

이렇듯 상부의 결정 지시를 『통채로』 내려 먹인 결과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한 것은 뻔한 일…

△

정주군 인민 위원회에서는 종자 확보 사업을 아주 철저히 했다고 『자랑』한다.

그들은 포전 감정한 각 리 논밭들에서 정성껏 가꾼 우량 종자들을 가져다가 군 량정 창고에 보관하고 큼직한 잠을쇠를 잠궜다.

호랑이는 그들의 이와 같은 『자랑』을 록음하기 위해 량곡 창고에 들어가 봤다. 『애개개… 우량 종자를 다른 량곡과 막 섞어 놓았으니…』

이렇게 되고 보니 일년내내 정성들여 가꾼 우량 종자는 기름 엎지르고 깨 줍기… 호랑이는 부득불 그들의 『자랑』을 『잡음』으로 록음할 수 밖에…

△

정주군 인민 위원회 농산부 일꾼들은 상급의 지시대로 영농 기술 강습회를 제 날자에 소집하고 회수도 보장했다고 희색이 만면…

그런데 날자와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급급한 그들은 강습 받을 대상을 고려없이 아무나 불러다 인원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강사는 시간이 촉박해 불충분하게 준비한 제강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고…

그래 수강생들은

『리에 가서 어떻게 전달 강습회를 하나?』

『모르는대로 하지…』

『앞으로는 했다는 이름만 내는 이런 일들은 제발 고쳐야 해』

그러나 농산부에는 영농 기술 강습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고… 상급에 보고할 서류가 작성되여 있었다.

△

한 달 전에 시달된 금년도 화학 비료 배정 통지서는 요지음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게 된 석산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동무의 눈에 띄우지 않아 그냥 묵고 있다. 그가 땀을 흘리게 된 것은 리유가 있다.

그는 새 해 영농 계획 수립에 있어서 책상에 마주 앉아 『참고 서류』를 열심히 본 덕분에 손 쉽게 세웠다.

그런데 이 계획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 한가지 실례만 보드라도 토지 확장지는 작년에도 앞산 기슭에 있는 50반보의 땅이고 금번에도 그 땅 50반보가 그대로 들어 있으니 로력이 많아서 이미 한 것을 또 할 작정인지… 자급 비료 생산 계획은 협동 조합들에만 세우고 개인 농민들에게는 빼여 놓았다. 그래 농민들은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기했다.

산협에서는 내가 났소

백인균 그림

—하하하… 뜨락또르 동무! 산에서는 내가 났다우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춘경 사업에서 대 농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산간 지대의 포전에까지 뜨락또르에만 의존하면서 자체 축력 농기구를 광범히 리용할 데 대하여 등한히 하고 있다

제때에 벗겨 주자

홍종호 그림

춘경기 전에 충분하고 주밀한 영농 준비를 한다는 것은 1년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아…그…「참고 서류」를 열심히 보다가 에참…』 위원장 동무는 이렇게 후회하면서 영농 계획을 다시 세우느라고 한달 전부터 갑자기 땀을 뻘뻘 흘렸다.

그런데 그 『참고 서류』는 다름 아닌 지난 해의 영농 계획서라고… 그의 땀 흘리는 『학질병』은 언제나 떨어지고 춘경기를 앞두고 기다리는 화학 비료가 농민들의 손에 닿을런지…

△

『결산 분배 사업도 끝났으니 나는 좀 쉬여야 하겠소 부기원 동무는 내가 아니라도 능히 일들을 척척 잘 하는데…』 위원장이 말하자

—아저씨 아저씨 하고 짐만 지운다더니 공연히 비행기를 태우고 자기 할 일까지 넘겨 씨우니 내가 약지 못해서 바가지를 쓸까— 부기원은 속으로 대답한다.

동현 농업 협동 조합 조합원들은

『춘경기가 박두했는데 영농 준비 사업을 합세다』하고 수차 제기했다.

그러나 위원장과 부기원은 화로를 가운데 놓고 서로 얼굴만 보았다. 얼마 후에야 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어 한다는 말이 『요지음 제일 추운 땐데 따뜻해지면 일합시다 봄이 아직도 멀었소…』

류 달

관료주의 이모저모

콩밭이냐? 팥밭이냐?

태천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실에는 며칠째『협의제 강화에 대하여』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그 후 군 산림 경영소에서 이미 상당리 국유림에 28정보의 조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토지 행정부에서는 개간할 것을 농업부에 제기하고 농업부는 검토 없이 농산 계획을 작성하여 상당리에 시달하고 상당리에 있는 상품 농업 협동 조합에선 이 땅을 방목지로 리용하자고 측량까지 하는 등 하나의 땅을 가지고 수다한 문건이 왕래하면서 사업을 혼란…

『협의제 강화에 대하여 회의를 한번 더 해야 하겠소』위원장 동무는 입맛만 다셨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한『협의제 강화』에 대한 회의는 하나 마나 매 한가지인『회의』였다고…

『생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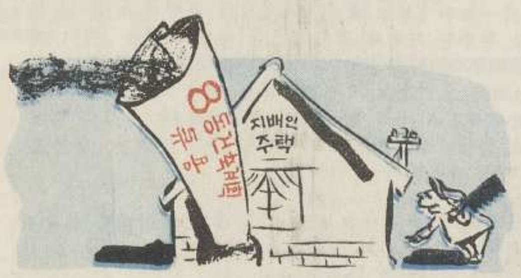
삭주 식료 공장 지배인 리 주순 동무는 행정 경리부 일군들을 불러다 놓고

『왜 종업원들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등한하우? 국가에서 지으란 로동자 주택도 아직 착수도 안 하니… 일이 됐소?』하고 책상을 치며 말했다。

행정 경리부 일군들은 동분서주하며 목재며 기와 등 자재를 구해다가 종업원들의 주택을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리 주순 동무는

『우선 지배인 사택이 녀절해 안됐소 먼저 큼직히 지읍시다』그리하여 국가 지표인 로동자 주택 8동은 지표에 없는 지배인 사택 하나로 되였다고…



『때를 놓친 벽보』

농민들은 토지 보호 복구며 소토 작업, 구비 생산, 니탄 채취 등 자급 비료 생산이며 우량 종자 확보며 영농 준비 사업에 한사람 같이 나섰다。

그런데 철산읍 민주 선전실에는 목재가 가득 쌓여 창고처럼 되여 있고…

—농민들이여!"때를 놓치지 말고 벼 가을에 총 동원하여 찬바람 불기전에 완수하자!— 벽에 붙은 벽보가 찬바람에 나붓긴다。 벽보는 때를 놓치지 말라고 호소하나 이렇고 보니 때를 놓친 건 농민들이 아니다…

지식 자랑하려기에

『오늘 군에서 내려와 강연하신 강사 동무는 참 유식한 분 갈던군!』

『그래?! 난 조노라고 이야기를 채 듣지 못했어』

『나도 조금 졸긴 했지만 졸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유식한 말을 많이 알까 하고 난 감탄했네』

『난 그와는 반대네「우리 조선 농촌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하고 숱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러나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더란 말일세…』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지 이야긴즉 아주 유식하다는 말이네』

『내가 보기엔 그 분은 농민들이 알아듣건 못듣건 관계 없이 제가 아는 지식은 죄다 털어내 놓고 지식 자랑이나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뵈지 않데…』

주인은 없이

—여보게 조선은 아세아에 있나 그렇지 않으면…

—동무는 참 무식도 하네 우리 조선이 아세아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니

—아닌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무식해서 잘못 생각한거나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던 중이네

—어째서?

—리 농식이라는 유식한 선생님이 쓰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는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데 대해서 자세히 쓰면서도 조선 인민이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은 한마디도 안했던군 그래서 의심이 생겼지

—그러니까 그 책에는 주인은 없고 손님들만 들어앉아 있는 격이로군…

참조등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 참 모를 일 아닌가? 지난 가을에 "추경 사업을 제때에 하자"는 제목으로 농민들 앞에서 대중 강연을 했는데 "대산리 민주선전실장 김 기봉이의 그 강연은 아주 잘못됐다고 악평이 돌고 있으니 말이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했겠다…

—내용이 문젠게지?

—내용은 절대로 자신 있네 아주 권위 있는 책에 의거해서 제강을 짰으니까 "과학원 학보"에 실린 "경종법"이란 론문을 놓고 제강을 짰으니까

—"과학원 학보"에 실린 글이면 틀림없을 텐데… 그러면 내용을 잘못 전달한건 아닌가?

—아니야 절대로 그럴리는 없어 읽어보니까 나도 잘 리해하지 못할 학술 용어가 많아서 서뿔리 하다가는 과오를 범할는지도 모르겠기에 대부분은 그 론문을 그대로 베껴다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발은 제 치수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신이 맞지 않는건 발이 틀렸기 때문이란 말이 되겠군!

현실적 요구와는 관계 없이

일해리는 농촌 리다。 농촌에서 긴급한 문제들도 많았건만 일해리 민주 선전실장 림 이섭이는 인민반 선동원들을 모아놓고 쎄미날을 주었는데 "선전 도상의 난관"이였다。

『사회 발전은 항상 운동하며 전진한다 낡은 것은 파괴하고 새 것을 창조한다…』

이렇게 그는 쎄미날을 시작했다。

농촌의 현실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까다로운 용어를 수다히 쉬어서 그나마도 정확치도 못하게 쓰면서 말한 이 쎄미날이 인민반 선동원 사업에나 리내 전체 농민들에게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선전 부문에서 나타난 이상과 같은 형식주의 교조주의야말로 "선전 도상의 난관"이라 하겠다。

이만하면 친절하지요

나는 의자도 권했고

담배와…

불까지 손수 붙여 주었다

최영근 그림

『보 신 술』

위원장 김 원래 동무는 비판 정신이 아주 강하다。 그는 하부 일군들에 대하여 비판을 강력히 전개한다。 그런데 자기 결함에 대하여서는 우물쭈물…

—지난 해의 사업 총화와 인민 경제 계획 실행 대책에 대하여— 등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함에 있어서 그는 자기가 범한 오유가 비판될까봐 몇몇 사람만 참가시킨 회의를 소집하여 간단히 넘겨버렸다。

그 반면에 —수부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림 승권 동무에 대하여— 한 사람의 규률 문제를 가지고 각 리 인민 위원장 군급 기관 일군들 수십명도 참가시킨 인민 회의를 소집하여 어마 어마하게 비판 사업을 전개했다。

벽보에 대하여

공장 기업소 및 농업 협동 조합 등에서의 벽보 공작은 대중적인 문화 공작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당과 정부의 제반 시책을 자기 직장에 알맞게 제때에 구체화 하여 침투시키며 선진 기술과 선진 일꾼들의 모범을 일반화 하며 이러저러한 결함을 시급히 시정시킴으로써 생산 성과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때문에 벽보 공작은 자기 실정에 알맞으며 실제 사업과 옳게 결부된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취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엔 소기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본 편집부는 공장 기업소 및 농업 협동 조합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벽보 공작을 참관하고 느낀바 몇가지 의견을 말하면서 벽보 공작에 참고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일부 벽보에는 괴상적이며 교양적 의의가 희박한 비판들이 있다。 때문에 실효보다도 감정과 불만을 자아내게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상 결함의 원인들을 옳게 해명해 주며 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만 모든『병집』에 대한『약』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둘째, 벽보를 통하여 찬양을 함에 있어서『만세』에 그치며 지도적 의의가 희박한 경향이 있다。 때문에 그 모범이 보급되기보다도 공명심만 조장시키거나 또는 이를 경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사업상 모범이 된 요인들을 옳게 소개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극을 주는 데 있다。 그리하여『새 것』에 대한『산파』적 역할과 함께『낡은 것』에 대한『매장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벽보 공작이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실정을 옳게 료해하며 사업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또한 모범이든 결함이든 반드시 당 단체 및 근로 단체의 책임적인 확인과 함께 될 수 있는데까지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제때 정확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취급하되 어데까지나 알기 쉬우면서도 재미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편성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 이 만화들은 우수한 그림을 활발히 게재하고 있는 북중 기계 제작소 및 신의주 고무 공장의 벽보들에서 전재한 것으로 벽보 공작하는 동무들의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편집부)

공장 벽보 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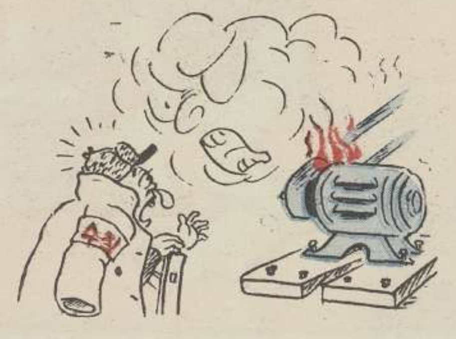
북중 기계 제작소 벽보에서

계획 달성에 바쁜 북중 기계 제작소김 경화 동무는 자기 기대를 점검할 사이도 없이 선반기를 운전하였다。

기계는 고속도로 돌아갔다。

이렇게 요란스럽게 돌아가던 기계에서 갑자기 나사못이 룩 튕겨나오자 선반기가 멎었다。

이러고 보면 기계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자고 한 것은 말 뿐…



신의주 고무 공장 직장 신문에서

눈을 부비며 앉아 있는 동력 직장의 수직원 리 춘화 동무는 모터 돌아가는 소리에 몇번 눈을 번쩍 뜨군 하드니 드디여 스르르 잠들고 만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수직원의 잠도 깊어졌다。

독한 냄새에 수직원이 잠에서 깨여났을 때는 이미 새벽이였었고 분명히 돌아가던 모터는 불에 타고 있었다。

이때는 수직원의 잠도 달아났고 신의주 고무 공장의 모터 한대도 불에 달아났다。

북중 기계 제작소 벽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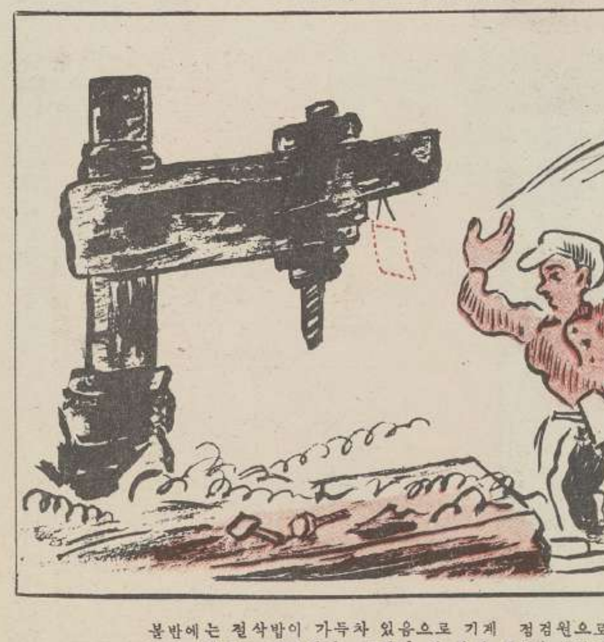
누구나 북중 기계제작소창고 안을 들여다 보면 내가(프레스) 먼지에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꽤 오래 이런 신세가 되여 기름마른 메달 속에는 거미가 알을 슬어 놓았답니다。

나는 하루 속히 깨끗한 몸이 되여 부지런히 일하고 싶건만 나에게 찾아드는 것이라곤 온통 검불과 흙 뿐이지요。

언제 가야만 나(프레스)의 이 하소연이 풀릴 때가 오려는가요…

이러한 만화는…



불반에는 절삭밥이 가득차 있음으로 기계 정검원으로부터 "운전 정지" 패짝을 부치였다 그러나 김 봉선 동무는『이건 다 뭐야』하면서 운전 정지 패짝을 떼 던지였다

이렇게 그리는 것이 좋다

김 봉선 동무! 왜 어지러운걸 좋아 하오?

편집 위원 장 진 광 (책임 주필) 박 무 백 광 호 발행소 활 살 (시사 만화 잡지) 사 인쇄 1956. 2. 1. ㄱ—40041
서 만 일 신 불 출 리 갑 기 정 헌 웅 인쇄소 국 립 종 합 인 쇄 소 발행 1956. 2. 15. (값 50 원)

말하는 미제의 괴뢰

미 제국주의자들의 원자탄 공갈은 오늘날 아무도 놀라게 할 수 없게 됐다 하물며 리 승만 도당의 입을 빌어서 원자 무기에 대해 지꺼리게 한들 그 누구를 놀라게 할 수 있으랴

만성 북진 발광증

『북진 명령만 내린다면 지금이라도 목숨을 바치라』

정의와 새 삶을 찾아 의거 입북

장진광 그림